

## 전국 공시지가 10% 안팎 오른다 서울은 20% 넘을수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은 20%를 훌쩍 넘는 지역도 나올 전망이다. 표준지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마저 급격하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7일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한국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이날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5%로 예상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1%로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고 경기도는 5.9%, 인천은 4.4% 상승률을 보여 수도권은 평균 10.5%가 오를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23.9%), 중구(22.0%), 영등포구(19.9%), 성동구(16.1%), 서초구(14.3%), 용산구(12.6%) 등의 지가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점쳐졌다.

지방은 광주(10.7%), 부산(10.3%), 제주(9.8%), 대구(8.5%), 세종(7.3%) 순으로 높을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5.4%), 경남(4.7%), 전북(4.4%) 등지도 4~5%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보유세 등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근거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실거래가가 급등했는데도 공시지가에 상승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곳에 대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감정평가사들이 가져온 공시지



가 안을 심의하는 지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취지를 수용하면 서도 국민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서울 중구와 서초구 등 여러 구청이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을 보내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하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 등이 예정된 곳은 오히려 공시가격을 더 올려달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 토지 보상 가격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하남시는 최근 정부로부터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교산신도시 후보지역에 있는 일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상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소유자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재확인하는 등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해 대졸 실업자 사상 최대

지난해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이 크게 늘면서 취업시장에서 대졸자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뉴스1'이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실업자는 33만 6,000명으로 전년 33만 4,000명보다 2,000명(0.5%) 증가했다. 이는 2000년 교육별 실업자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4년제 졸업 남자가 20만 4,000명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했으며 여자는 13만 2,000명을 기록했다. 남자는 전년대비 7,000명(3.7%) 늘어난 반면 여자는 6,000명(-4.1%) 감소했다.

특히 전문제 대학 졸업자를 포함하면 고학력 실업자는 고졸 실업자를 웃돌았다. 지난해 전문제 대학 졸업자를 포함한 대졸 이상 실업자는 49만 4,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고졸 실업자 44만 4,000명보다 5만 명 많은 규모다.

대학을 졸업했으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366만 6,000명으로 전년 354만

6,000명보다 12만 1,000명(3.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0.6%보다 5배나 높은 수준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나 가사, 연로, 심신장애, 취업준비, 구직포기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낸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만큼 경제활동인구가 줄기 때문에 경제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지난해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면서 대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년 만에 0.1%포인트(p) 감소했다.

이처럼 대졸 실업자나 대졸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것은 학력 수준은 높아졌으나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현실과 괴리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5월 기준 청년층이 첫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보면 보수나 근로 시간 등 근로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해 스스로 실업자가 된 경우가 전체 이직경험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 지난해 8월 기준 그냥 쉬었다는 비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은 일자리 문제로 그냥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쉬었다는 인구는 30만 9,000명을 나타냈으며 일자리가 없어서 쉬는 인구는 13만 7,000명에 달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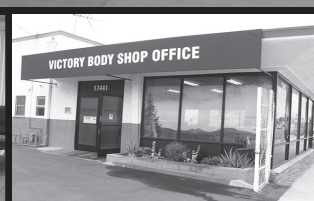
#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